

쌀·생수·반찬 나눔... “그렇게 살아간다”

재능기부 스토리

취약계층에 생활 물품 지원

독거노인·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맞춤형 지원 확대

‘같이의 눈을 키우는 농부 쌀집 아저씨’ 장형준님께서 황금눈쌀 4kg 5포를 매달 기부해 주시기로 했는데 이번달에도 기부를 이어가셨습니다.

농부의 정직한 마음이 보이는 좋은 쌀인 황금쌀 쌀을 생산하시는 장형준 대표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두 자녀의 품질보증서가 들어있습니다.

구입 문의는 스마트폰으로 ‘황금눈쌀’을 치시면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바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농부장형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스파클썬 호남지사 푸른물애 이충식 지사장님과 사모님이신 ㈜여행이조아요 김정숙 후원회원님께서 스파클 생수를 매달 재능기부센터에 기부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번 달도 스파클 생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기부해주신 생수는 형편이 어려운 독거노인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파클 생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스파클 생수 푸른물애’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수를 후원해주신 이충식 지사장님과 김정숙 후원회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형교님께서 형편이 어려운 이웃 분들을

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10만원을 광주재능기부센터에 기부해주셨습니다.

기부해주신 기부금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에 동참해 주신 이형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광주공유센터와 광주광역시종합주거복지센터가 업무협약을 진행했습니다.

광주 공유센터와 광주종합주거복지센터는 상호 협력하여 광주광역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과 재능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종합주거복지센터 장주화 센터장님께서 협약을 계기로 광주의 주거복지가 한층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하하 문화’ 회원님께서 이번 달에도 반찬을 정성스럽게 만드셔서 광주재능기부센터에 기부해주셨습니다.

‘하하 문화’ 회원들은 광주재능기부센터를 통해 지속적인 기부를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회원들께서 직접 반찬을 만들어 나눔에 동참해 주신다고 하셔서 우선

아빠가 아이들을 키우는 한부모 가정 20가정을 대상으로 반찬 나눔을 해주고 계십니다. 한 눈에 봐도 균형이 되는 맛있는 반찬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셔서 전달을 해드



매 달 황금눈쌀을 기부해주고 있는 장형준 대표



매 달 생수를 기부하고 있는 스파클 푸른물애 이충식 대표

렸습니다. 4월의 메뉴는 제육볶음, 참치야채전, 멸치볶음, 시금치나물입니다.

특히 소산식품 임시호 대표님께서 수제 숯불갈비를 기부해주셔서 풍성하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반찬 기부에 동참해주신 ‘하하 문화’ 회원들과 임시호 대표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40대 김 모 여성에 대한 지원 소식입니다. 김 씨는 지적장애로 남편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는 혼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경제활동이 어려운 실정이고 식사 준비 등 일상생활 전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편은 경계성 장애로 김 씨 명의로 차

량과 핸드폰을 구입하고 차량 할부와 핸드폰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독촉이 이어지고 있고 통장 및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진행이 되었고 핸드폰도 정지된 상황입니다.

살고 있던 집은 임대아파트인데 수 년 동안 임대료와 관리비, 공과금 등을 내지 않아 수도와 전기가 끊겼고 결국 집을 나와 구청에서 제공한 임시거처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었고 긴급지원비를 지원받아 그동안 밀린 관리비와 공과금을 해결하고 다시 아파트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동안 사용을 하지 않던 가전제품들은 고장이나서 사용이 어렵게 되었고 살림살이들이 없

어 입주를 다시 하더라도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들을 구입해 지원했습니다. 김 씨는 오랜 기간 동안 집에서 살지 못하고 임시거처에서 살다 보니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못해 힘이 들었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도움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30대 김 모 여성에 대한 지원 소식입니다. 김 씨는 미혼모로 혼자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아이를 낳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집

으로 들어가기 힘들었던 터라 심터에 입소하다가 아이를 출산하였고 출산 이후로 심터를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자 아버지와 남동생이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임대주택으로 12평의 좁은 집에서 4명이 살고 있어서 생활에 불편한 점이 많으며 집정리가 되지 않아 박스에 옷과 물건들을 담아 쌓아두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인해 경제적인 활동이 어려워 기초생계수급자로 생계비를 지원받아 생활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딸과 손자까지 함께 생활을 하게 되어 더 힘든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쫓겨 소독도 해야 하고 분유도 데워서 주어야해 꼭 필요한 것이 전라레인지인데 아버지에게 구입하지는 이야기를 하지 못해 아이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레인지를 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김 씨는 미혼모로 산다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일을 해야 하지만 아이가 너무 어리다보니 그러지 못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었다면서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미혼모로 혼자서 아이를 키우다보니 어려움이 많지만 잘 견뎌내서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도움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우철 광주재능기부센터 대표

▶문의사항 (기타 센터에 대한 문의도 가능)
“광주재능기부센터. 나눔 N JOY”
전화 : 062-431-0918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 실현을 최우선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DH Group

